

“목적에 충실하면 그게 천당”

어, 운전하거나 일할 때 화두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화두 들면 큰일 나지요. 운전할 때는 운전을 잘 하는 게 화두입니다. 정진할 때는 좌선을 잘 하는 게 화두이듯이,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몰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당이 됩니다.”

물론 공부에 힘을 얻어 어묵동정(語默動靜)에 때(때)하지 않는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해도 화두가 되지요. 힘이 순숙(純熟)해지면 자성이 어둡지 않고 성성(惺惺)히 깨어있게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극락이다’, ‘내가 부처이자 우주의 주인공이다’ 하는 신심을 갖고 자기 연마를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불국토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면, 잠잘 때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하나?

“깨어있을 때 힘을 얻어야 잠 잘 때도 공부 가 되지. 잠이 들어도 잠에 치우치지 않고 성성해서 깨어있어야. 옛날 서산 대사도 용맹정할 때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산발(散髮)을 이룰 정도로 공부해서 새가 머리에 등지를 틀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스님의 하루 일과(日課)가 궁금합니다.

“나는 일과가 없어요. 오직 자성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면서 몸뚱아리 버릴 때 깨끗하게 가려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내생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부처님과 같은 대도(大道)를 성취해 중생 교화에 나서리라 원력을 세울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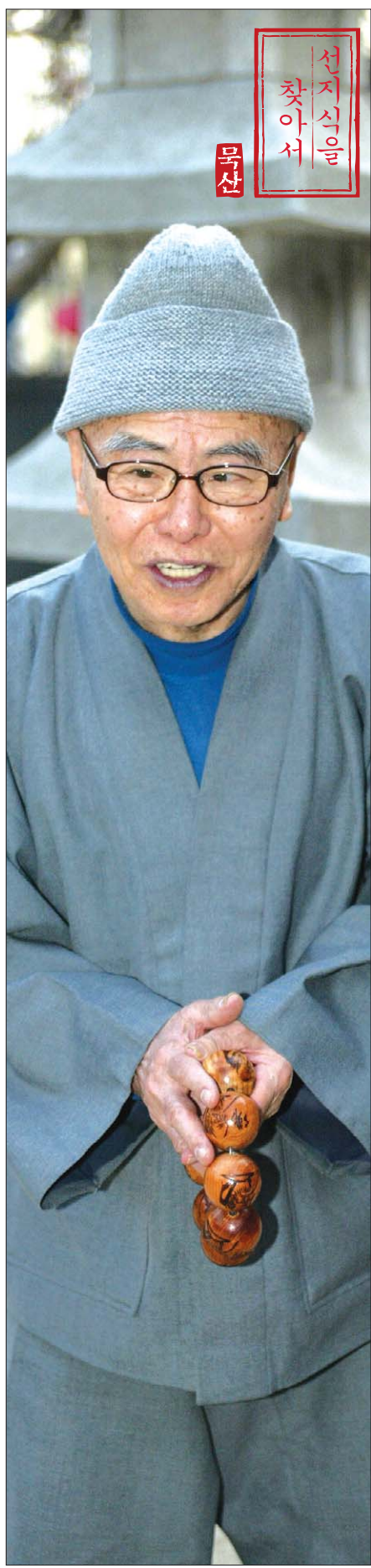
-백봉 거사님과 크스님께서는 ‘허공’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허공이란 뭘입니까?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버려서 체득되는 공도리를 뜻합니다. 4상(相)을 버리지 못하면 공도리를 못 끌고도 생사해탈을 못 해요. 아공(我空; 나라는 것이 공하다) 법공(法空; 일체법이 공하다) 구공(俱空; 아공, 법공 마저 공하다)의 삼공(三空) 도리를 실현 경이 <금강경> 아니겠어요.”

-크스님께서는 ‘허공을 삼켰다’ ‘허공을 부셔버렸다’는 법문을 자주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직접 체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말로는 못해요. 우리가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은 진공(眞空)자리에서 벌어지는 일거든요. 마음을 잘 써서 덕과 지혜를 닦아 인생문제를 풀러나가야 해요. 불교방승이나 신문에 좋은 법문을 많이 내보내니 차츰 심성이 정화되고 계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스님, 아까 절에 들어오는데 개가 멍



졌었는데,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개노릇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하! 부처님께서는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등 12유생(類生; 중생이 태어나는 열두 가지 형태)을 전부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개도 불성이 있으니까 성불시켜야 한다는 거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도 치고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는데, 그걸 잡아먹으니 눈물 날 일이지요.”

-부처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하셨을까요?

“지식적인 이해로는 설파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 달라 보여도 같을 수 있고, 같아 보여도 다를 수 있거든.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歸何處)’ 공안에 대해 조주 스님은 ‘내가 청주(靑州)에 있을 때 삼베로 옷을 지었는데 무개가 일곱 군이었지’ 라고 대답했고, 고봉원묘 스님은 ‘개가 풀을 숭가마를 활한다’ 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강 스님에게 가서 두 선사(의 대담)에 대해 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똑같다’ 고 그래요. 하지만 나는 ‘같지 않다’ 고 부정해 버리고 나왔습니다.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는 말 따라 가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

-두 대답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셨는지요.

“조주 스님이 고봉 스님에게 한 방향이 맞다고 볼 수 있지요. 조주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던 행자가 ‘무(無)자’ 화두를 깨친 후 ‘스승의 할미가 본래 여인입니다(師姑元來女人做)’ 라고 말해서 인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참구해보세요.”

-끝으로, 불자들에게 기축년 새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몸 받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바른 법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마음에 보리종자를 심어 늘 닦아나가는 생활로 도업(道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백봉 거사가 입적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목산 크스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거사를 대신해 생사와 열반이 틀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설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오늘 내가 만난 선지식이 백봉인지, 유마인지, 아니면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멍! 멍!”

질문을 내서는 순간, 뒤에서 또 개가 짖는다. ‘조주 무자’ 한번 박살내 보라고?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6> 신통 도인 탄공 대선사

1990년 내가 대구 관음사 초의 스님 초청으로 천수경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 노 대통령 의 장모님 되신 분 팔순 기념으로 하는 특강법회였다. 3박4일 동안 마치고 점심공양을 하는데,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화 한 쪽을 주었다. “이 그림은 몇 년 전 탄공 스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들 출세를 위해서 그림을 부탁하셨더니 사돈양반에게는 잉어를 하나 그려 주고, 저에게는 이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70을 넘기 어렵다고 하더니 80을 살았으니 의한이 없습시다. 나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매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 청주 수도원에 법문하러 갔다가 이 말씀을 드려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07살 되신 분이 있는데, 성격이

“1900년 도화서 백일장에 나갔다가 그려 보인 것이 급제가 되어 지금까지 노는 일에 열매하는 식으로 흰 종이에 먹칠하고 있지.” “수행은 주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장성 백양사. 의성 고운사,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 세월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1953년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개운 조사를 만나 겨우 내 살 곳을 얻게 되었지.” “포교는 어떻게 하고요?” “허허,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미친 사람을 만나. 괜히 말 보고 짓는 개와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1시간 이상 말씀을 하시다.

“오늘은 이만 가고, 청주에 내려오면 종종 한 번씩 들르라.” 하시며, 학 두 마리가 늙은 소 나무 밑에서 붉은 태양을 바라보

“중이 어떻게 제 머리를 깎는 거?”

그래서 개운 조사의 위패를 모셔놓고 삭발하고, 위패상좌로 비구니 시봉 두 분을 두어 회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해 5월 25일 새벽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 보니 의자에 앉은 채 몸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상좌가 말했다.

“몸이 식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 한잔 드시고 싶다고 하여 차려드렸더니 대중을 다 불러 모이라 하였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나서, ‘너희들도 한 잔씩 들고 오늘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자’ 하고도 당시 당시 학춤을 추면서, ‘오작교가 무너졌다. 오작교가 무너졌다’ 노래하셨습니다. 밤 10시까지 놀다가 주무셨는데, 새벽 3시 예불에 나오시지 않아 들어가 보니 이렇게 앉아서 가셨

118세에 학춤 추고 노래 부른후 좌탈

별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 신도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탄공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보자마자 운전수 여인을 발로 차며, “이런, 뭇 허러 왔어. 제 예미 예미를 다 잡아먹은 년이!” 하고 소리를 질러 신도님은 도망을 가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려 하니,

“뭘 찰자 할 것 있겠나. 나하고 키스나 한번 하세.” 하고 겨냥과 입까지 꼭 맞춰버렸다.

“나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네. 1881년에 상주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집에 있으면 죽는다고 청송 주왕산 대선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여태까지 죽지 못해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습니까?”

고 있는 그림을 주셨다.

그 후부터는 1년에 두 세 번씩 시간 나는 데로 스님께 들렀다. 그런데 1997년 12월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년 6월에는 갈 터이니 더 좀 자주 오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2월 달까지 가지 못했더니 전화가 왔다.

“내가 금년에는 간다고 했는데 세배까지도 오지 않나?”

“예,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작은 보따리에 그림 몇 장과 노트 두 개가 있었대.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그 노트에는 생의 일지를 생 각난 데로 간단히 적어 놓고, ‘내 머리를 깎아 준 한 법사님께 감사한다’는 말씀도 적혀있었다. “머리가 더풀거려 귀찮게 해.” “다시 삭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스님께서는 늘 이 의자에 앉아 ‘저 건너 저 굵이 내 집이다’ 하였는데, 거기 바로 스님의 아버지 어머니 묘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118세로 열반에 드신 탄공 스님의 역사가 끝이 났다. 나는 매년 5월이면 인연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한 법사, 잘 있었어. 마누라 한 사람 데리고 왔는가?” 하시며, 손을 꼭 쥐고 포옹하시는 스님이 눈앞에 선다.

불자님을 위한 특별행사! 선착순 30분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원동형 고효율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업소용·농업용·사무실용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2.5kWx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외자부담)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1.8kWx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외자부담)

ADD-2000(적용면적: 5평형)
열량 / 2배 · 사이즈 / 270x470mm · 무게 / 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2.5kWx8=1,086원
특별할인가: 78,000원 (택배비 2,800원 소외자부담)

●NS-7000(적용면적: 10평형)
열량 / 2.9kW · 사이즈/355x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2.9kWx8=1,575원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1.8kWx8=978원

나산전기 난방이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 / 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대워 실내가습효과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NS-7200(적용면적: 5평형)
열량 / 1.8kW · 사이즈 / 355x660mm · 무게 / 3.5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x1.8kWx8=978원

주 사용자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펜션)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